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인환, 임동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The Effect of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Expertise on Job Satisfaction

In-Hwan Park, Dong-Ho Lim*

Department of Naturopathy,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S시와 K시의 물리치료사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직업전문성 22문항, 직무만족 15문항으로 본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업전문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기술 요구, 전문직 단체, 사회 봉사성, 직업윤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에 자율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직무만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전문적 지식과 기술 요구, 전문직 단체, 사회 봉사성, 직업윤리는 직무만족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물리치료사의 근로의욕, 자기개발, 개인성과 향상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될 수 있으며, 직무에 관련한 전문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로 폭넓게 쓰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occupational expertise of physical therapists on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202 physical therapists in S and K cities. The research tool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included 8 questions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on occupational expertise, and 15 on job satisfaction.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pecialization and job satisfaction, wherea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eter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mining the effect of occupational specialization of physical therapists on job satisfaction, it was observed that autonomy and social and economic status, which are sub-factors of occupational specialization,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However,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requirements, professional organizations, social service, and work ethics imparted no significant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utonomy,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a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expertise are highly influential on job satisfaction, but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requirements, professional organizations, social service, and occupational ethics have no influenc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work motivation, self-development, and personal performance improvement of physical therapists, and can widely be used as empirical data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related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Keywords :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Expertise, Occupational Expertise-social and Economic Status, Occupational Expertise-autonomy, Job Satisfaction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ng-Ho Lim(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eatiger@hanmail.net

Received May 15, 2023

Revised May 31, 2023

Accepted July 7, 2023

Published Jul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의·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며 고령화로 변해가는 인구구조와 건강수명에 대한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료들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의료 전문직군이 생기고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을 치료하는 직군인 물리치료사가 각광받고 있다[2].

물리치료사는 열전기치료, 수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이다[3].

물리치료사는 전문적인 직업군으로서 일반직업과 달리 해당 직업군에 대해 높은 지식, 기술, 소양을 보유하며, 직업에 대한 가치, 신념, 정체성,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직윤리와 문화를 형성하고 독창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하고, 직무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과 독특한 업무특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문가 활동을 하는 집단이어야 한다[4].

또한 직업전문성에 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책임감, 자율, 권위, 전문가의 특징을 가지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하며 인류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직업을 말한다[5].

그러므로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은 특정 전문가 직업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헌신 수준을 나타내는 태도이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율적이고, 권위를 가지는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 일에 대한 소명 의식, 공익을 추구하는 봉사심과 자기통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특수한 위치를 확보한 전문가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다[4,6].

이러한 보건의료관련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들의 병원 근로자들의 주 임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별한 환경과 업무속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타 직종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그로인한 문제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7].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직업을 가진 자가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과 태도 및 지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8].

이러한 환경속에서 직무 자체와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감정적 표현인 유쾌한 감정, 정서적인 만

족상태를 직무만족이라고 한다. 직무만족이란 학자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9]는 '직무 만족이란 각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악감의 총화, 균형 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척도라고 정의했다. [10]은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한 개인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했다.

기존 다른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있지만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관련되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1]은 카지노 산업에서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12]는 MICE산업 종사자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물리치료사외의 서비스 직종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의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 S시와 K시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병·의원 물리치료실에 재직 중이며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물리치료사이다. 제외기준은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이거나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물리치료사이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

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였을때 표본수는 최소 134명이었지만 모집 결과 210명이 참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의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직업전문성 22문항, 직무만족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연령, 근무경력, 학력, 월 평균 보수, 근무지, 평균 근무시간, 환자의 수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13]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또는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요구 4문항, 자율성 4문항, 전문직 단계 3문항, 사회, 경제적 지위 4문항, 사회봉사성 2문항, 직업윤리 5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전문성 전체 신뢰도는 .762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14]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또는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이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5문항,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5문항, 급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전체 신뢰도는 .799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Occupational Expertise	22	.762
Job Satisfaction	15	.799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s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의 성별에서는 남성(132명, 65.3%)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5세~30세(73명, 36.1%)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85명(42.1%)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106명(52.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월 평균 보수는 400만원 이상(72명, 35.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1차병원(개인병원)은 160명으로(79.2%)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10시간 미만(130명, 64.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1일 치료환자의 수는 5명~10명 미만(83명, 41.1%)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 (N=202)		
	Frequency	Ratio(%)	
Sex	Male	132	65.3
	Female	70	34.7
Age	25~30s	73	36.1
	31~35s	72	35.6
	36~40s	37	18.3
	Over 40s	20	9.9
Work experience	Less than 3 year	38	18.8
	3~5 years	48	23.8
	5~10 years	85	42.1
	Over 10 years	31	15.3
Education	Junior College	50	24.8
	University	106	52.5
	Master's degree	39	19.3
	PhD	7	3.5
Average monthly compensation	Less than 2.5 million	17	8.4
	2.5~3.0 million	59	29.2
	3.5~40 million	54	26.7
	Over 400 million	72	35.6
Place of work	Primary hospital	160	79.2
	Secondary hospital	42	20.8
Average working hours	Less than 8 hours	18	8.9
	8~10 hours	130	64.4
	10~12 hours	52	25.7
	Over 12 hours	3	1.0
Number of patients	Less than 5 people	18	8.9
	5~10 people	83	41.1
	10~15 people	75	37.1
	Over 15 people	26	12.9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직업전문성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의 변인 중 표준편차는 직업 윤리 요인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n occupational expertise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202	2.0	5.0	3.90	.59
Autonomy	202	1.25	5.0	3.49	.71
Professional association	202	1.0	5.0	3.88	.78
Social and economic status	202	1.5	5.0	3.42	.62
Social service	202	1.5	5.0	3.34	.64
Work ethic	202	2.2	5.0	4.05	.57

N=number, M=mean, SD=mean±standard deviation

3.2.2 직무만족에 대한 기술통계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의 변인 중 표준편차는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Technical statistics on job satisfaction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Satisfaction with the job itself	202	1.8	5.0	3.53	.60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n the hospital	202	1.8	5.0	3.47	.57
Satisfaction with salary and compensation	202	1.0	5.0	3.44	.71

N=number, M=mean, SD=mean±standard deviation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 변인과 직무만족의 변인의 상관관계는 전문적지식과 기술요구 요인과 사회봉사성, 전문직단체,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상관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가설 1을 채택하고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1								
② Autonomy	.450 (**)	1							
③ Professional association	.358 (**)	.309 (**)	1						
④ Social and economic status	.384 (**)	.537 (**)	.207 (**)	1					
⑤ Social service	.101	.292 (**)	.191 (**)	.352 (**)	1				
⑥ Work ethic	.607 (**)	.503 (**)	.473 (**)	.487 (**)	.199 (**)	1			
⑦ Satisfaction with the job itself	.380 (**)	.585 (**)	.142 (*)	.661 (**)	.287 (**)	.444 (**)	1		
⑧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n the hospital	.366 (**)	.583 (**)	.123	.590 (**)	.272 (**)	.401 (**)	.764 (**)	1	
⑨ Satisfaction with salary and compensation	.373 (**)	.556 (**)	.197 (**)	.485 (**)	.321 (**)	.365 (**)	.603 (**)	.740 (**)	1

n = 202, **p<.01, *p<.05

3.4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3.4.1 직업전문성의 요인이 직무만족의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값이 52.5%가 설명되고 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F=35.946, R²=.525). 그리고 공차한계는 모두 .1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은 1.930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종속변수에 대하여 자율성 요인(β=.300, p=.000)과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β=.44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의 자율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요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Table 6과 같다.

3.4.2 직업전문성의 요인이 직무만족의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값이 46.3%가 설명되고 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F=28.009, R²=.463). 그리고 공차한계는 모두 .1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

Table 6. The effect of occupational expertise on Satisfaction with the job itself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Satisfaction with the job itself	constant	.816	.260		3.143	.002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059	.065	.058	.906	.366	.591	1.692
	Autonomy	.249	.053	.300	4.700	.000	.600	1.668
	Professional association	-.086	.044	-.112	-1.971	.050	.748	1.337
	Social and economic status	.424	.061	.444	6.983	.000	.603	1.658
	Social service	.039	.050	.042	.781	.436	.841	1.189
	Work ethic	.091	0.75	0.87	1.218	.225	.479	2.088

Watson은 1.697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무만족의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종속변수에 대하여 자율성 요인($\beta=.357$, $p=.000$), 전문직 단체 요인($\beta=-.121$, $p=.048$),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beta=.35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의 자율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 그리고 전문직 단체가 높을수록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요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Table 7과 같다.

3.4.3 직업전문성의 요인이 직무만족의 급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 요인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값이 38.4%가 설명되고 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모형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F=20.226$, $R^2=.384$). 그리고 공차한계는 모두 .1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은 1.606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무만족의 급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 종속변수에 대하여 자율성 요인($\beta=.359$, $p=.000$),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beta=.203$, $p=.006$)과 사회봉사성 요인($\beta=.139$, $p=.025$)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의 자율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 그리고 사회 봉사성이 높을수록 급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 요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Table 8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occupational expertise on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n the hospita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 in the hospital	constant	1.076	.265		4.058	.000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076	.066	.079	1.153	.250	.591	1.692
	Autonomy	.285	.054	.357	5.264	.000	.600	1.668
	Professional association	-.089	.045	-.121	-1.991	.048	.748	1.337
	Social and economic status	.323	.062	.352	5.208	.000	.603	1.658
	Social service	.044	.051	.050	.865	.388	.841	1.189
	Work ethic	.050	.077	0.49	.653	.515	.479	2.088

Table 8. The effect of occupational expertise on Satisfaction with salary and compens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Satisfaction with salary and compensation	constant	.377	.356		1.059	.291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166	.089	.137	1.869	.063	.591	1.692
	Autonomy	.360	.073	.359	4.950	.000	.600	1.668
	Professional association	-.023	.060	-.024	-.376	.707	.748	1.337
	Social and economic status	.233	.083	.203	2.802	.006	.603	1.658
	Social service	.155	.069	.139	2.265	.025	.841	1.189
	Work ethic	-.018	.103	-.014	-.176	.861	.479	2.088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는 직업전문성 측정하기 위해서는 [13]이 사용한 측정도구와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14]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전문성의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762이 있으며 직무만족은 전체 신뢰도는 .799로 모두 .7이상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11]은 카지노 종사자의 직업 전문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15]은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따른 직무만족은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은 군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16,17]는 간호사의 직업 전문성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와 [18-20]는 간호사가 직업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1]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문성인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도 높다고 하였고 [22]은 전공의들의 전문직으로서의 자기인식이 뚜렷할수록 자신의 직업만족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또한 [12]은 MICE산업 종사자의 낮은 직업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23]은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직업전문성은 소명의식과 자율성 요인의 순으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24]의 연구에서도 직업 전문성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25]의 연구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6]의 연구에서는 자연치유산업 종사자의 전문직 단체로서의 요건과 업무 자율성의 영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은 직업 전문성은 여러 방향과 여러 직종에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설1과 같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지만 직업전문성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의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요인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회귀분석은 자율성,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전문성 요인은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의 병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만족 요인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회귀분석은 자율성 요인, 전문직 단체,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전문성 요인은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의 급여와 보상에 대한 만족 요인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회귀분석은 자율성,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봉사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선행 연구들처럼 본 연구의 직업전문성 요인들이 직무만족 모든 요인에 가설 2와 같이 정(+)의 관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자율성, 사

회, 경제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한정된 지역에서 병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과 근무환경은 개인인원에 치중되어 있어 이를 전체 물리치료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각 독립변수들과 직무만족도간의 관련성 여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독립변수가 직무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가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이 직무만족의 증진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과 직무만족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G*Power 3.1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표본수 최소 134명이었지만 모집 결과 202명이 참여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각 독립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전문성의 요인은 독립변수로 직무만족 변인을 종속변수로 실시한 회귀분석은 자율성, 사회, 경제적 지위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물리치료사는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대우와 존경을 받을수록 또는 본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후회없는 만족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이 안정적이며 타 직업에 비해 보수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직업 특성상 의사의 지시하에 일을 하지만 업무수행중에는 상사 또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수록 그리고 소속 병원에서의 중요한 결정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로써 지속적인 공부와 지식습득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협회나 대외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물리치료사의 희생,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 마지막으로 직업윤리에 대한 것들은 직무만족에 유의하지 않지만 좀더 본인의 직업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봉사성을 가지는 것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References

- [1] S. Y. Lee, J. H. Sim, A. R. Si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Physical Therapists, *Korean Journal of Neuromuscular Rehabilitation*, Vol.12, No.3, pp.66-77, 2022.
- [2] S. J. Park, *The Effect of Job Stress, Orhanizational Commitment, Self Efficacy on Turnover Intention of Physical Therapis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Nambu University, pp.2, 2023.
- [3]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rticle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dical Technicians, etc. (Business by Medical Technician Classification). <http://www.law.go.kr>, 2023.
- [4] Hall R. H.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 Sociol Rev*, Vol.33, No.1, pp.92-104, 1968.
- [5] J. W. Hyun, *(A) study on empowerment among operationg room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29, 2003.
- [6] Wynd, C. Evidence-based Education and the Evaluation of a Critical Care Cours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of Nursing*, 33(3), 2002.
- [7] Abu Tariab, H. S, Razan, T. H, Rawan, A. A, Sana, M. N. A, Al-Oraibi, S.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Jordanian occupational Therapists : A qualitative stud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Vol.58, pp.405-411, 2011.
- [8] J. H. Choi, H. G. Lee, J. C. Han, J. Yoon, C. S. Jeong, K. J. Oh. *Understand of Human Behavior*. Seoul, Bobmunsa, 1998, p.502.
- [9] Smith, H. C. Psychology of in dustrial behavior. *New York: Mc Graw-Hill, Book Co.* pp.114-115, 1955.
- [10] Y. K. Shin, *Organizational behavior*. Seoul, Dasanbooks, 1983, p.738.
- [11] M. J. Lee, W. S. Seo, J. Y. Kim, Professionalism of Casino Employees: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3, No.1, pp.95-112, 2019. DOI: <https://dx.doi.org/10.17086/JTS.2019.43.1.95.112>
- [12] J. M. Son,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ism on the job satisfaction of MICE employees, *Journal of MICE & Touriwm Reserch*, Vol.12, No.2, pp.47-65, 2012.
- [13] J. N. An, *betwee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Role Performance of Childcare Teachers*.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audate School of Education, pp.35-36, 2017.
- [14] J. H. Lee, *Effects of Professionalism on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Technician*.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p.8, 2018.
- [15] T. S. Shin, Y. C. Cho,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58-4271, 2014.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7.4258>

- [16] K. W. Sung, A Comparative Study on Main Role,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Public Health Nurses and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Vol.32, No.2, pp.219-230, 2002.
DOI: <https://dx.doi.org/10.4040/jkan.2002.32.2.219>
- [17] G. M. Hampton, D. L. Hampton,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cated Nurse-Midwives. *J Nurs Res*. Vol.57. No.9, pp.1042-1053, 2004.
- [18] S. H. Ko, B. Y. Chnu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Korea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3, pp.335-344, 2004.
- [19] S. Y. Lee, J. A. Choi, J. H. Lee, A study on military nursing officers' nursing professional value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 Military Nursing Research*. Mar, Vol.26, No.1, pp.104-122, 2008.
- [20] K. Hallin,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 Adv Nurs*. Jan, Vol.61, No.1, pp.62-70, 2008.
DOI: <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 [21] O. T. Kim, S. H. Lee, Relations of professionalism awareness to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instructors in sport for al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9, No.6, pp. 473-483, 2010.
- [22] Y. S. Kang, S. Y. Kam, M. H. Yeh, Interns' and residents'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effect to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Vol.30, No.1. pp.209-228, 1997.
- [23] H. S. You, M. J. Kim, The Effect of Medical Tour Coordinator's Professionalism on Job Attitude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NATR)*, Vol.11, No.1, pp.41-58, 2015.
- [24] J. S. Chin, H. S Kim, Y. K. Lee, The Relationships among Expertise,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Leisure Sports Instructor,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3, No.2, pp.191-202, 2015.
- [25] K. H. Lee, Job-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of Child-Care Teacher'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4, No.2, pp.1-20, 2007.
- [26]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Expertise, Job Satisfaction, and Wellness Perceived by Workers in the Natural Healing Industry*,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University, 2022, pp.88.

박 인 환(In-Hwan Park)

[정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 중
- 2014년 1월 ~ 현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
- 2017년 7월 ~ 현재 : 연세휴재활 의학과의원 도수치료

<관심분야>

자연 치유

임 동 호(Dong-Ho Lim)

[정회원]



- 1993년 4월 : 인도 부네대학교 대학원 철학 석사
- 1999년 8월 : 인도 부네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교수

<관심분야>

자연 치유